

욥기

21회기: 하나님의 말씀 1과 욥의 응답(욥 28-40:5)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하나님의 말씀 1과 욥의 응답, 욥기 38-40:5입니다.

야훼 연설 소개 (욥기 38-40:5) [00:28-1:52]

이제 우리는 마침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야훼의 연설에 이르렀다. 물론 이것은 세 번째 담화 섹션입니다. 서스펜스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욥의 무죄 맹세를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임재와 동반되지만, 진행되고 있는 일에 특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에 시정책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욥의 무죄 맹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손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정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정렬 세계의 복잡성 [1:52-3:18]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신에 그는 완전히 다른 전술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시작할 때 당신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복잡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질서정연한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 정연한 세계의 극한 영역에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의 복잡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욕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정의와 보복 원칙에 따라 질서를 정한다는 전제하에 작업해 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훼가 그의 연설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곳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서, 비질서 및 무질서 [3:18-5:45]

이제 이 시점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용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나는 비질서, 질서, 무질서를 사용한다. 비질서는 본질적으로 악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혼돈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이 의인화되거나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비순서는 중립적입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포장한 모든 상자를 가져와 방 여기저기에 놓고 새 집에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상자는 비순서를 나타냅니다. 예상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주문할 준비가 된 상태로 상자에 모두 포장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2절의 무순서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창조는 질서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창조하신다고 말하는데, 지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질서를 추구하고 사물을 질서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순서는 프로세스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거의 모든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순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습니다. 신이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그는 모든 비질서를 해체하지 않는다. 결국 정원 내부에는 질서가 있는 공간이 있고 정원 외부에는 질서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다는 질서 없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적의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이 주문 시스템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는 질서를 뜻하는 마아트(Ma'a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모든 종류의 문학의 초점입니다. 우주론과 법 또는 비문은 종종 왕이 어떻게 질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질서가 없는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질서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그의 계획에 참여하는 부통령인 신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비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소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악에서 파생된 질서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질서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비질서, 무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과 비질서 및 보복 원칙[5:45-8:08]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비질서, 고통,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무질서와 악한 행동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보복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에도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우주의 영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정식을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은 세상의 작용을 보복 원리라는 하나의 단순한 명제로 축소하는 이론의 확신에 찬

정식화를 반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정의가 제도의 기초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작업 38 및 비순서 [8:08-10:44]

우리는 38장에서 그가 질서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광대한 땅을 이해했느냐?” 나는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안다면 내게 말하라 빛의 처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나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들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들이 거쳐하는 길을 네가 아느냐 진실로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미 태어났고,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꼬는 고리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야훼의 연설조차도 문학적 구성물이라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풍자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점을 만들기 위해 그의 입에 넣습니다.

“너는 눈 공간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예비한 우박 공간을 보았느냐 번개가 흩어지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동풍이 땅에 흩어지느냐?” 그가 이 우주적 작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읊? 그러나 특히 25절을 보십시오. 보복 원칙은 정의입니다. 시스템의 기초로서 비는 사법 시스템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홍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땅과 성장하는 식물에 다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비는 여기 정의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의 때를 대비한다는 개념을 몇 구절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항상 사법 제도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보보복원칙과 정의를 기본으로 [10:44-11:50]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욥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의 가정 중 일부에 대해 욥을 확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복 원칙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공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을 40장 첫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전을 말씀하십니다. 욥을 내세우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 어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막고 한 번 말하여도 대답이 없고 두 번 말하겠노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무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11:50-12:56]

이 책의 목표는 단지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책이 제공해야 하는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키우도록 돕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그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서론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조언을 줄 것입니다 .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놀라운 두 생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하나님의 말씀 1과 욥의 응답, 욥기 38-40:5입니다. [12:56]